

# 일개 지역 노인들의 성인식, 성생활 및 생활만족도

김춘미<sup>1</sup> · 이홍자<sup>2</sup>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1</sup>, 대구한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sup>2</sup>

## The Relation between Sex Perception, Sex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im, Chunmi<sup>1</sup> · Lee, Hung Sa<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sex perception, sexual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Methods:** The respondents were 227 elders aged over 65.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0 to December 15, 2007 by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Results:** Of the respondents, 18.8% still had sex life and 25.5% wanted to have a date. The main reason to have a date was to relieve loneliness, 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wanted a date was 58.3. The perception level of sex life was 2.27 (men: 2.51, women: 2.14), the satisfaction level of sex life was 2.74 (men: 2.89, women: 2.64),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2.98 (men: 3.10, women: 2.92).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level of sex life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sex lif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level of sex life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and no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level of sex life an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a base supporting the usefulness of various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making elderly people have a positive perception of sex life.

**Key Words:** Aged, Sexuality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현재 10.3%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라면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Korea, 2010). 인구의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와 노년기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Kim, 2006). 사회통계조사

(Statistics Korea, 2010)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그 다음으로는 외로움이나 소외감의 문제가 큰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노인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 한국노인의 전화에 따르면 이성교제와 성적인 문제는 노후생활의 고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ilver Call of Korea, 1997).

인간은 좀 더 나은 영양상태, 휴식, 건강함과 더불어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관심과 능력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즉 음식, 물, 안전에 관한 욕구충족이 되면 이어서 소속감과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뒤따르는데 노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욕구는 변화하지 않는다(Kim, 2006).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32.8%가 성생활을 현재 하고 있으며(Kim &

**주요어:** 노인, 성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ung Sa,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aany University, 165 Sang-dong, Suseong-gu, Daegu 706-828, Korea, Tel: 82-53-770-2289, Fax: 82-53-770-2286, E-mail: lhj@dhu.ac.kr

투고일 2010년 7월 30일 / 수정일 2010년 9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16일

Lee, 2000), 홀로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노인들 스스로 고독과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하여 66.9%의 대상자들이 이성교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2002). 그리고 외국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Brecher, 1984)에서도 60대 이상의 80% 이상, 70대의 65% 이상이 성적으로 활동적이라고 제시되고 있어서 노인들에게 있어서 성적욕구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노인의 성은 단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Yoon, 2002). 왜냐 하면 인간의 성은 죽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본성이며, 사회에서 간과하고 있는 노인의 성적욕구는 한 개인의 권리이자(Miller, 2001), 인간을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동일한 유형의 삶을 유지시키는 재생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Lee, 2004). 노년기의 정기적인 성생활은 노인들로 하여금 삶의 기쁨과 만족감 및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Yoo, 2003) 우울을 감소시키고(Chung, Ahn, & Jeon, 2004), 높은 자긍심을 유지하게 하고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등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Block & Bakos, 1999). 아울러 노화에 따른 성적, 신체적 변화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성생활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성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만족도도 높다(Kaplan, 1990).

이처럼 인간의 성활동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활동은 신체적이며, 생리적 제약과 사회문화적인 압력으로 인해 노인자신 및 사회구성원의 성적편견이 작용하여 제한되어 왔다(Holmes, 1987). 이에 대해 Oh (1997)는 노인의 성적활동 감소의 원인은 연령보다는 사회적 환경, 주변인의 태도 등에 더 영향을 받으며, 성에 대한 공포, 무관심, 잘못된 죄책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죄책감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성적 관심 표출에 대해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으로 취급하는 편견 때문에 노인들 자신의 성적욕구를 스스로 죄악시 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성생활은 노인자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고 바람직한 노인의 성생활을 위해서는 노인의 성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다양한 노인들의 성욕구는 생활전반에서 나타나 노인들의 질적인 삶을 위해서 주요한 부분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Kim, 2006).

그런데 노인의 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전문가들은 노인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성욕구에 대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Song, Kim과 Oh (1997)는 임상현장에서 의료인들은 간혹 성적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에 모호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요 쟁점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적 관심을 가진 대상자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것일 수 밖에 없다. Smith (1999) 또한 지금까지 간호사들이 노인들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미숙하였고, 성을 중요한 건강문제로 고려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성에 대한 지식과 상담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간호대상자로서의 노인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간호사는 노인의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신념들을 알아야만 하고, 성욕과 관련된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Drench & Losee, 1996)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 실태와 노인 스스로 성생활과 성만족도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인식과 만족도가 어떻게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임상 또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건강요구에 포괄적으로 부응하는 간호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노인들의 성생활과 관련된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실태를 파악한다.
- 노인의 성인식도,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를 각각 분석하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실태 관련 요소에 따른 성인식도,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를 분석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성생활실태와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H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 대학,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비확률 표출법 중 임의표출로 선정하였다.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에서 검정력 .95를 유지하기 위하여 G-power program에 의해 계산한 바 표본수 210명이었으며, 탈락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수는 227명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조사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한 대상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읽고 자가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구원이 설명을 한 후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2월~12월이었다.

## 3. 연구도구

설문지는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성생활 실태, 성인식도,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성인식

성인식 측정도구는 Lee (1999)가 개발한 도구로, 성생활 태도 3문항, 성생활 중요도 3문항, 성생활 욕구 4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검정결과 Cronbach's  $\alpha = .884$ 이었다.

### 2) 성생활만족도

성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Chang (1989)이 Derogatis와 Melisaratos (1979)의 Sexual Function Inventory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번역한 것으로 총 10문항의 5점 척도 도구이다. 각 항목에 대해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검정결과 Cronbach's  $\alpha = .914$ 이었다.

### 3)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측정은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선행연구를 근거로 재구성한 Eom (2006)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3점 척도로서, 각 항목에 대해 '만족한다' 3점, '보통이다' 2점, '만족하지 않는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검정결과 Cronbach's  $\alpha = .849$ 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특성 등은 백분율과 빈도로 산출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다.
- 노인성생활 실태에서 변수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분포를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이 67.8%, 남성노인이 32.2%였다. 연령대별 분포에서는 70대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60대의 순이었다. 전체 노인 중 종교를 가진 노인의 비율은 76.8%였다. 유종교자의 분포를 보면 기독교가 48.7%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천주교의 순이었다.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 31.2%, 중졸 19%의 순이었다. 고졸 노인은 10.9%였으며, 대졸 노인은 단지

3.2%였다. 전체 노인 중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단지 44.8%였는데, 이는 70대 이후가 80%나 차지하는 대상자의 특성과 연관이 있으며, 이혼이나 별거 등의 이유가 아닌 배우자 사별과 관련이 있다. 노인들의 한 달 생활비는 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노인이 32.5%로 다음 순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100만원 미만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상 노인들 중 고령자가 많아서인지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가 73.1%로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이 6.7%,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비율이 9.8%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가 16.5%였다.

한편, 주관적으로 노인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4.5%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응답한 5.8%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노인들의 건강수준 중 '대체로 건강이 나쁨'이 25.8%로 가장 많았다. 노인 중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8.9%였으며,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노인은 38.5%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노인 배우자의 건강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건강함'이 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건강이 양호하다는 응답자는 50.9%인 반면에 건강이 나쁜 응답자는 28.1%였다. 그리고 노인들의 주요 만성퇴행성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고혈압 유병률은 39.2%, 당뇨 유병률은 15%, 관절염 유병률은 26%로 고혈압이 가장 많았다.

## 2. 성별에 따른 노인들의 성생활실태

노인들의 성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성경험, 성관계 빈도, 최근 성생활만족도, 이성교제육구와 그 이유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8%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81.2%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성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근 6개월 내의 성생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노인이 12.1%였던 것에 비해서 남성노인은 30.2%로 높았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생활을 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성관계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2~3번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5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개월에 2~3번이라고 응답한 노인들이 23.3%였다. 성별에 따른 성관계 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Female	154 (67.8)
	Male	73 (32.2)
Age (year)	60s	44 (19.7)
	70s	137 (61.4)
	80s	42 (18.8)
Religion	Christian	109 (48.7)
	Buddhist	42 (18.8)
	Catholic	15 (6.7)
	Etc.	6 (2.7)
	Atheist	52 (23.2)
Education level	None	69 (31.2)
	Elementary school	79 (35.7)
	Middle school	42 (19.0)
	High school	24 (10.9)
	≥ College	7 (3.2)
Living together	Spouse living together	99 (44.8)
	Spouse living separately	122 (55.2)
Average expenses per month (10,000 won)	< 50	93 (55.0)
	50~<100	55 (32.5)
	100~<150	13 (7.7)
	150 ~<200	2 (1.2)
	≥ 200	6 (3.6)
Types of employment	Permanent employee	13 (6.7)
	Temporary employee	19 (9.8)
	No job	141 (73.1)
	Etc.	20 (10.4)
Economic status	Affluent	13 (5.8)
	Middle	133 (59.6)
	Poor	77 (34.5)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Healthy	31 (14.0)
	Relatively Healthy	55 (24.9)
	Middle	50 (22.6)
	Relatively unhealthy	57 (25.8)
	Very unhealthy	28 (12.7)
Spouse' health state	Very healthy	18 (15.8)
	Relatively healthy	40 (35.1)
	Middle	24 (21.1)
	Relatively unhealthy	24 (21.1)
	Very unhealthy	8 (7.0)
Chronic disease	High blood pressure	
	None	138 (60.8)
	Yes	89 (39.2)
	Diabetes mellitus	
	None	193 (85.0)
	Yes	34 (15.0)
	Arthritis	
	None	168 (74.0)
	Yes	59 (26.0)
	Others	
	None	175 (77.1)
	Yes	52 (22.9)

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최근 성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질문에 64.5%의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만족감이 적다고 응답하였다. 25.8%의 노인들은 과거와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7%의 노인들만이 만족감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성별에 따른 성관계 만족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 노인들이 여자 노인들보다 성만족감의 정도가 현격히 낮아서 80.0%의 남자노인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족감이 크다고 한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인들에게 이성교제에 대한 욕구를 묻는 응답에서 성별에 따른 이성교제욕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노인들은 12.6%만이 이성교제를 원했던 반면에 남성노인들은 65.5%나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고독감이 제일 큰 이유였다(Table 2).

### 3. 노인의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성인식도를 측정한 결과 4점 척도로 구성된 총 10개 항목

중 ‘노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의 평균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성생활은 젊었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늙으면 필요 없다’가 2.41로 차순위였다. 반면에 ‘성 기구나 정력제들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2.03으로 가장 낮았다.

성생활만족도 측정도구는 총 10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평균값은 2.74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성교시간이 충분하다’가 2.85, ‘나는 성에 관해 흥미가 있다’ 2.85, ‘성관계 후 나는 편안하고 만족감을 느낀다’가 2.79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에 ‘나는 파트너와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2.39, ‘나와 배우자(또는 이성 친구)와의 성생활은 다양하다’가 2.39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었다.

생활 만족도의 측정도구는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의 정도를 묻는 내용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평균 생활만족도는 2.98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중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2.49)’, ‘대인관계의 폭이 넓다(2.34)’,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된다(2.34)’의 순이었다. 반면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나는 요

**Table 2.** Sexual Life and Need of the Elderly

Characteristics	Categories	Female	Male	Total	$\chi^2$ (p)
		n (%)	n (%)	N (%)	
Having sex within recent 6 months	Yes	13 (12.1)	19 (30.2)	32 (18.8)	8.417 (.004)
	No	94 (87.9)	44 (69.8)	138 (81.2)	
	Total	107 (100.0)	63 (100.0)	170 (100.0)	
Sex frequency	Once or more per week	4 (18.2)	2 (90.1)	6 (13.6)	4.344 (.227)
	2~3 times per a month	10 (45.5)	13 (59.1)	23 (52.3)	
	2~3 times per 6 months	6 (27.3)	2 (9.1)	8 (18.2)	
	2~3 times per a year	2 (9.1)	5 (22.7)	7 (15.9)	
	Total	22 (100.0)	22 (100.0)	44 (100.0)	
Recent sex life satisfaction	Dissatisfied	13 (46.4)	20 (80.0)	33 (62.3)	8.007 (.018)
	So-so	10 (35.7)	5 (20.0)	15 (28.3)	
	Satisfied	5 (17.9)	0 (0.0)	5 (9.4)	
	Total	28 (100.0)	25 (100.0)	53 (100.0)	
Need for date	Need	14 (12.6)	23 (65.7)	37 (25.3)	39.658 ( $<.001$ )
	No Need	97 (87.4)	12 (34.3)	109 (74.7)	
	Total	111 (100.0)	35 (100.0)	146 (100.0)	
Reason for date	Relieving loneliness	15 (57.7)	13 (59.1)	28 (58.3)	3.779 (.286)
	Getting friendliness	4 (15.4)	3 (13.6)	7 (14.6)	
	Avoiding living inconvenience	6 (23.1)	2 (9.1)	8 (16.7)	
	Solving sexual need	1 (3.8)	4 (18.2)	5 (10.4)	
	Total	26 (100.0)	22 (100.0)	48 (100.0)	



즘 살맛이 난다(1.89)',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1.91)', '몸이 자주 아프고 피곤하다(1.94)'의 순이었다.

#### 4.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성생활 실태 특성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성별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들의 점수가 각각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중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성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높았던 반면에 초졸 학력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동거 여부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수준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

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만족도는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지각된 건강인식도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의 점수가 각각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 중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성질환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정한 결과 고혈압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뇨 및 관절염 유무에 따라서는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생활여부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인식도, 성생활만족도 그리고 생활만족도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성의식도 더 긍정적이며, 성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성교제 욕구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인식과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인식과 생활만족도는 이성교제를 원하는 노인들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Table 3.** Sex Perception, Sexual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ex perception		Sexual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M±SD (n)	t or F (p)	M±SD (n)	t or F (p)	M±SD (n)	t or F (p)
Sex	Female	21.4±5.27 (120)	22.757 ( $<.001$ )	26.4±6.69 (70)	4.242 (.042)	29.2±5.89 (126)	4.803 (.030)
	Male	25.1±4.34 (63)		28.9±5.98 (48)		31.0±5.28 (70)	
	Total	22.7±5.26 (183)		27.4±6.50 (118)		29.8±5.73 (196)	
Age	60s	23.8±5.23 (36)	1.501 (.226)	29.1±6.04 (28)	1.575 (.212)	32.1±4.87 (37)	5.637 (.004)
	70s	22.5±5.31 (113)		27.1±6.95 (74)		29.9±5.97 (118)	
	80s	21.6±5.00 (30)		25.5±4.25 (13)		27.8±4.66 (37)	
	Total	22.6±5.26 (179)		27.4±6.53 (115)		29.9±5.67 (192)	
Education level	None	22.0±6.01 (49)	1.559 (.187)	26.2±5.51 (26)	5.105 (.001)	28.9±4.99 (55)	2.774 (.028)
	Elementary school	21.9±5.01 (69)		27.0±5.19 (43)		28.9±5.73 (71)	
	Middle school	23.4±5.24 (34)		26.4±7.38 (25)		30.8±6.08 (38)	
	High school	24.1±4.37 (22)		27.2±5.18 (16)		30.4±5.99 (21)	
	≤ College	25.8±3.71 (6)		38.6±5.90 (5)		35.3±4.35 (7)	
	Total	22.6±5.28 (180)		27.2±6.24 (115)		29.7±5.69 (192)	
Living with spouse	Living together	23.4±5.03 (82)	3.155 (.077)	28.4±5.75 (64)	5.340 (.023)	30.7±5.69 (87)	4.112 (.044)
	Living separated	22.1±5.38 (101)		25.8±6.56 (53)		29.0±5.62 (107)	
	Total	22.7±5.26 (183)		27.2±6.24 (117)		29.8±5.70 (194)	
Economic status	Affluent	25.5±5.97 (11)	1.889 (.154)	27.9±4.78 (7)	1.828 (.165)	32.1±8.14 (10)	8.483 ( $<.001$ )
	Middle	22.3±5.32 (108)		28.2±6.65 (74)		30.9±5.43 (115)	
	Poor	22.6±4.96 (61)		25.7±6.29 (37)		27.6±5.25 (69)	
	Total	22.6±5.26 (180)		27.4±6.50 (118)		29.8±5.73 (194)	

## 5. 대상자의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인식은 성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 $r=.418,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생활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정적상관관계( $r=.294,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식은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 $r=.105, p=.176$ )으로 나타났다(Table 5).

## 논 의

본질적으로 성이란 정신,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므로 노인의 성도 마찬가지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Song et al., 1997). 인간의 발달주기를 고려할 때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신체적 차원의 성이 아니라 기쁨이나 이완, 의사소통, 교류, 친밀감의 공유로서의 성이다(Steinke & Bergen, 1986). 따라서 노인들에게 성생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

**Table 4.** Sex Perception, Sex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Health Status and Sex Life

Variables			Sex perception		Sex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M±SD (n)	t or F (p)	M±SD (n)	t or F (p)	M±SD (n)	t or F (p)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healthy		23.7±6.18 (22)	1.776 (.136)	29.7±7.70 (18)	2.058 (.091)	35.0±4.56 (26)	15.228 (<.001)
	Relatively healthy		22.2±5.02 (48)		27.5±5.28 (37)		30.7±5.04 (52)	
	Normal		23.0±4.99 (42)		25.7±7.15 (26)		30.9±4.24 (44)	
	Relatively unhealthy		23.4±4.62 (48)		28.3±6.23 (26)		27.0±4.66 (46)	
	Very unhealthy		20.1±6.45 (20)		23.7±4.95 (10)		25.9±7.12 (26)	
	Total		22.7±5.29 (180)		27.3±6.44 (117)		29.8±5.76 (194)	
Chronic disease	High blood pressure	No	22.9±5.67 (114)	0.397 (.529)	27.5±5.50 (71)	0.069 (.793)	30.3±5.58 (119)	2.458 (.119)
		Yes	22.4±4.51 (69)		27.2±7.84 (47)		29.0±5.91 (77)	
	Diabetes mellitus	No	22.8±5.24 (155)	0.218 (.641)	27.5±6.52 (102)	0.225 (.636)	30.5±5.56 (165)	13.812 (<.001)
		Yes	22.3±5.45 (28)		26.7±6.56 (16)		26.4±5.54 (31)	
	Arthritis	No	22.7±5.48 (141)	0.100 (.753)	27.3±6.49 (97)	0.179 (.673)	30.5±5.76 (146)	7.630 (.006)
		Yes	22.5±4.47 (42)		27.9±6.69 (21)		27.9±5.26 (50)	
	Others	No	22.7±5.17 (140)	0.019 (.891)	27.6±6.47 (99)	0.636 (.427)	29.9±5.50 (155)	0.175 (.676)
		Yes	22.6±5.59 (43)		26.3±6.72 (19)		29.5±6.61 (41)	
Recent sex relationship	Yes		25.9±2.96 (28)	16.273 (<.001)	31.3±5.55 (28)	16.080 (<.001)	32.9±4.48 (27)	9.702 (.002)
	No		21.6±5.53 (120)		25.8±6.35 (67)		29.1±5.96 (127)	
	Total		22.4±5.41 (148)		27.4±6.60 (95)		29.8±5.89 (154)	
Need for dating	Need		26.0±3.64 (34)	33.327 (<.001)	28.2±8.10 (26)	3.502 (.066)	31.2±4.79 (35)	5.002 (.027)
	No need		20.9±4.60 (84)		25.0±5.70 (40)		28.9±5.45 (94)	
	Total		22.3±4.91 (118)		26.2±6.87 (66)		29.5±5.36 (129)	

**Table 5.** The Correlation among Sex Perception, Sexual Life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s	Sex perception	Sexual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Sex perception	1		
Sexual life satisfaction	.418*	1	
Life satisfaction	.105	.294*	1

\* $p<.01$ .

과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노년기의 성적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스스로 건강하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간호대상자로서의 노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와 함께 신체적 건강상태 등의 제 특성을 조사하였고,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인들의 성생활 실태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생활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최근 6개월 내의 성생활 여부는 여성노인이 12.1%였던 것에 비해서 남성노인은 30.2%로 높아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Han (2006)의 연구에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29.0%, 이 중 남성이 56.9%, 여성이 5.1%인 것과 비교하면 전체비율과 남성의 성생활비율은 낮은 반면, 여성노인의 비율은 높았다. 한편 Lee (1999)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19.5%가 현재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성노인들의 30.0%, 여성노인의 11.1%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본 연구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Kim (2005)의 조사에서는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59.0%, 이 중 남성이 64.8%, 여성이 50.7%로 매우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후 노인표본을 좀 더 확대하거나 표집방법을 달리해서 정확한 성생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인식은 성생활 태도와 중요도, 그리고 성생활 욕구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4점 척도 도구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이 2.27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항목 중 ‘노인이 되어서도 성생활에 대해 누군가에게 터놓고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의 평균이 2.44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성 기구나 정력제들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2.03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Lee (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성욕구에 대한 이해 및 성상담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Eom (2006)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성적인 욕구가 강하고 또한 성을 더 중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여성노인들의 성인

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성에 대한 표현이 용납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여겨진다. 성인식의 중요도에 관하여 Kim (2003)은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노년기 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인들은 노년기 성생활이 가정화목, 삶의 활력 과도 연결되며, 인생에 애착을 갖게 하는 요소로 보며, 성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마감단계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에 대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로 담론의 장을 만들고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솔직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은 노인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노인대상자들의 성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 중 2.74로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항목별로는 ‘성교시간이 충분하다’와 ‘나는 성에 관해 흥미가 있다’가 2.85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에 ‘배우자(또는 이성친구)와의 성생활은 다양하다’, ‘나는 파트너와 성문제를 터놓고 이야기 한다’는 2.39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측정도구로 2.84점을 산출한 Kim (2006)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것은 노인들이 성적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관하여 성파트너와도 개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직까지는 노인들이 현재의 성생활에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3점 척도 중 2.13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다’였다. 반면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나는 요즘 살맛이 난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의 순이었다. Lee (1999)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는 3점 척도 중 2.03으로 본 연구보다는 약간 낮게 분석되었으며, 세부항목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분포를 보인 반면 현실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할 도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현실에서의 행복감과 희망을 갖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들에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들의 제 특성에 따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들의 점수가 각각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Kim과 Nam (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반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 Lee (1999)의 연구결



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 살고 경우, 경제수준이 양호할수록, 스스로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1999)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Jung과 Cho (2005)는 노인의 경우 생활만족도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동거여부가 아니라 얼마만큼 정서적으로 밀접하게 교감함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본 연구와는 상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성생활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Han (2006)도 성별, 교육수준, 경제수준, 연령, 유배우자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성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성의식도 더 긍정적이며, 성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에게 성생활은 삶의 활력소가 되며, 삶의 만족감을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인식은 성생활만족도와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성생활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인식은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생활만족도는 성인식도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Park, 2004), 성인식은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 연구(Eom, 2006; Lee, 1999)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우울은 성생활 인식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Chung 등(2004)의 연구결과와, 생활만족도를 행복감과 우울감의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Park, 2004) 중 행복감으로서의 생활만족도는 성생활만족도가 성인식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우울감으로서의 생활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노인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성적몰입 그리고 상호 성행동이 35.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행복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건강상태 한 가지 변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서 남성노인들에게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성적변수들이 많이 포함

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후 노인의 성과 관련된 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의미 있게 참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Kim (2003)은 질적 연구에서 노년의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노년의 성생활 등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성생활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즉 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적극적인 성생활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노인들의 건강욕구를 다루고자 할 때 기본적인 욕구의 범주로서 성적인 욕구 또한 포함시켜서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이해가 전제될 때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에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노인 대상자를 일개 지역에서 편의의 추출하였고, 공공장소에서 설문지를 통해 자가보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노인들의 솔직한 답변여부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노인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인성에 관련한 반복 및 확대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중 성적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에 관한 인식, 성생활만족도, 그리고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분석결과 18.8%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성생활을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5.5%의 노인들이 이성교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에서 여전히 성적욕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이를 충족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노인들이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로는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58.3%나 되어 노인문제에서 소외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인식은 4점 척도 중 2.3, 성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 중 2.7,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3점 척도 중 2.1 정도로 중간 정도의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식, 성생활만족도 및 생활만족

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인식은 성생활만족도와 정적상관관계, 성생활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성인식은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식이 긍정적인수록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노인들에게 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근거와 유용성을 제공하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에서 성에 관하여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노인부부간 성적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친밀감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성기능장애에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 등의 문제를 찾아내어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노인대상자들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중재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간호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Bae, N. R. (2002). *A study on th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remarriage among single elderly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Block, J. D., & Bakos, S. C. (1999). *Sex over 50*. NJ: Reward Books.
- Brecher, E. M. (1984). *Love and aging*. Boston: Little Brown.
- Chang, S. B. (1989). *An analytic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for sexual satisfaction in women who have had a hysterectom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Chung, Y. K., Ahn, S. R., & Jeon, M. S.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life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mal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6(2), 156-162.
- Chung, O. B. (2000). *Understanding of adult development*. Seoul: Haggisa.
- Derogatis, L. R., & Melisaratos, N. (1979). The DSFI: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exual functioning.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5(3), 244-281.
- Drench, M. E., & Losee, R. R. (1996). Sexuality and sexual capacities of elderly people. *Rehabilitation Nursing*, 21(3), 118-123.
- Eom, J. O. (2006). *The effect of the elderly's sexual awareness and behavior on their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Han, Y. H. (2006). Sexuality and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15, 133-146.
- Holmes, L. D. (1987). Cultural values and cultural change.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 195-200.
- Jung, T. Y., & Cho, E. Y. (2005). An examination of variables influencing loneliness and life-satisfaction of the aged: With focus on emotion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5(1), 55-71.
- Kim, J. D., & Nam, C. H. (1997).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influencing facto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3(2), 173-192.
- Kim, J. H. (2006). *Perception of sex, sexual life and sexual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H., & Lee, C. E. (2000). A study on sexuality of the married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3), 185-195.
- Kaplan, H. (1990). Sex, intimacy, and the aging proces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12, 185-205.
- Kim, Y. J. (2003). Perception of elderly sexuality and the sexual life of those who have spous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1(5), 133-143.
- Kim, K. Y. (2005). *A study on realities and cognition of old-age sexua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Lee, H. S. (2004). *The interdisciplinary study on the types of sexual conflicts among Korean elderly people -Sociological, theological, pastoral care & counseling approa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C. E.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the sex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Miller, A. M. (2001). Uneasy promise: Sexuality, health and human righ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6), 861-864.
- Oh, S. K. (1997). *Understanding the sexual rights of elderly people from the perspective of welfare philosophy*. Paper presented at the 2nd seminar of the aged health and welfare at Dongshin University, Naju.
- Park, Y. C. (2004). *Planning topic presen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self concept, behavio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per presented at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Seoul.

- Silver Call of Korea (1997). *Book of helpline case analysis 3*. Seoul: Silver Call of Korea.
- Song, M. S., Kim, S. M., & Oh, J. J. (1997). *Prospect and research of gerontological nursing*.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mith, M. (1999). *The nurse as promoter of sexual health, Rehabilitation in adult nursing practice*. Edinburgh: Churchill Living Stone.
- Statistics Korea (2010). *2008 Senior statistics*. Retrieved August 1, 2010, from [http://kostat.go.kr/board\\_notice/Board Action.do?method=view&board\\_id=78&seq=574&num=574&parent\\_num=0](http://kostat.go.kr/board_notice/BoardAction.do?method=view&board_id=78&seq=574&num=574&parent_num=0)
- Steinke, E., & Bergen, M. (1986). Sexuality and aging.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12(6), 6-10.
- Yoo, S. K. (2003). *The study on the relation of single elderly people's sex and their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on, G. H. (2002). Isolated sexuality, sexuality of the elderly. *Open*, 1, 88-91.